

2차 정상회담 합의 이행상황과 경기도의 정책방향

김동성 / 통일문제연구센터 연구위원
(dskim@gri.kr 031-250-3235)

목 차

요약

- I. 2007 정상회담 합의 사항과 분야별 추진 현황
- II. 경기도 남북협력사업 추진방향

요 약

- 2007년 10월 2차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합의 내용은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 구상, 경제협력, 자원개발·농업·의료 분야 사회문화교류, 인도적 지원 등임
- 새 정부는 대북 경협 추진의 4대원칙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, 경제성,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, 국민적 합의 등을 제시하였음 또한 4대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사업을 재검토해 우선 할 것, 나중에 할 것, 못 할 것 등으로 구분하되,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협력사업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음
 - 정상회담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,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, 백두산 관광 준비 등은 지속하되,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, 해주경제특구, 안변조선공장 설립 등은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- 남북한 당국간 교류협력사업의 지체와 정체는 역설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과 활동공간을 확대 할 수 있는 호기임
- 경기도 사업 추진 방향
 - 지방정부 고유의 남북교류협력 모델 창출
 - 인도적 협력사업의 지속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
 - 북한 내 일정 지역을 교류협력의 기반으로 육성
 - 중앙정부 국책사업 참여 및 공동 파트너십 구축
 - 남북교류를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

I. 2007 정상회담 합의 사항과 분야별 추진 현황

- 개성공단, 금강산·백두산 관광 사업, 인도적 지원 등 지속 추진이 예상되는 분야도 있으나,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, 해주경제특구, 안변조선공장 등의 사업은 재검토가 예상된다

1. 주요합의 내용

-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합의 내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, 경제협력, 자원개발·농업·의료 분야, 사회문화교류, 인도적 지원 등임
 -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는 해주경제특구, 해주항 개발, 공동어로, 한강하구개발 등등이 포함됨.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할 만큼 서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합의 사항으로 평가되었음
 - 경제협력 부문에는 남북도로·철도협력, 조선협력, 개성공단 협력 등이 포함됨. 자원개발에는 단천지구의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이 거론되었으며, 수산업협력, 보건의료, 환경보호협력 등이 포함됨
 - 사회문화 부문은 백두산·개성 관광을 비롯하여 역사·과학·언어·체육 등 다양한 세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. 이외에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협력 사업 등에 대해 합의하였음

2. 추진현황

1)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관련 논의 현황

-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1차 회의(2007. 12. 28 - 29)에서는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 연계하고, 2008년 상반기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 2차 회의 및 「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」 「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」 「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」 「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」를 개최하기로 함
- 2008년 1/4분기 내에 조선협력단지 측량 및 지질조사 실시에 합의하였으며, 2008년 3월 중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
- 평화수역/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2008년 상반기에 공동어로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나, 수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
- 한강하구 골재채취는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 및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음. 한강하구는 대운하의 출발점이며 신정부에서도 나들섬 구상 등을 내놓고 있어, 향후 남북간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임

2) 경제협력 관련 논의 현황

- 도로·철도 관련해서는 문산-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이 실시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, 조선협력단지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음

-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3통(통행, 통신, 통관) 간소화에 진전이 있었음. 통행은 7-22시 사이 상시통행 보장, 통신은 2008년부터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통신 허용에 합의하였으며, 통관은 선별검사 방식으로 간소화하였음
- 지하자원과 농수산협력에 큰 진전은 없으나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(첨부 참조)

3) 사회문화분야 논의 현황

- 금강산, 백두산, 개성 관광 관련하여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,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 참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음. 이외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진전이 예상됨

4) 인도주의 분야

- 이산상봉이외에 인도주의 분야에서 진전은 농업협력에서 있었음. 특히 양돈사업에 필요한 자재·장비를 남측이 차관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음
 - 양돈 사업의 경우 전북·제주 등 지자체들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협력의 새로운 주력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됨
- ※ 기타 주요 합의 내역에 대해서는 첨부자료 참조

3. 평가와 전망

-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,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는 많지 않음. 또한 대부분의 후속 논의들이 신정부 출범 이후로 일정이 잡혀있어, 합의사항의 준수 및 실천 여부는 신정부의 판단에 크게 좌우될 것임
- 새 정부는 대북 경협 추진의 4대원칙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, 경제성,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, 국민적 합의 등을 제시하였음. 또한 4대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사업을 재검토해 우선 할 것, 나중에 할 것, 못 할 것 등으로 구분하되,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협력사업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음
- 정상회담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,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, 백두산 관광 준비 등은 지속하되,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, 해주경제특구, 안변조선공장 설립 등은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
II. 경기도 남북협력사업 추진방향

- 남북한 당국간 교류협력사업의 지체와 정체는 역설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과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호기임
- 경기도 사업 추진의 목표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1. 목표

-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은 ‘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간의 사회·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기북부지역과 인접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균형발전과 통일환경 조성’을 목적으로 함

2. 기본원칙

-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‘점증적/단계별 추진’, ‘교류협력의 지속성 확보’, ‘상호이익의 증진’, ‘경기도민의 합의와 지원 도출’ 등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함

3. 추진방향

1) 지방정부 고유의 남북교류협력 모델 창출

- 경기도는 중앙정부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의 Track II로서 중앙정부와는 차별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

- 경기도는 이에 따라 사회/경제/문화 등 비 정치적인 분야에서 주민밀착형, 생활실용형, 지역발전형, 상호호혜형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
-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비해 정치적 변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남북 당국간의 정치적 경색기에는 남북교류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함

2) 인도적 협력사업의 지속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

- 경기도는 북한 주민생활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의 인도적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를 바탕으로 인적교류사업의 추진과 확대를 도모함
- 경기도는 인도적 협력사업과 더불어 경기도와 북한지역이 공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과 기타 상호호혜적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도모함

3) 북한내 일정지역을 교류협력의 기반으로 육성

- 경기도는 북한내 일정지역과 특별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 교류협력의 기반과 거점을 조성함
- 경기도는 이에 따라 개성, 개풍, 장풍 등 경기북부 인접지역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함
- ※ 그러나 경기도는 필요에 따라서는 집중적인 교류대상 지역이외의 지역과도 적극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. 경기도의 북한내 사업대상지역 확대는 경기도에 대한 북한당국의 신뢰와 의존을 제고 할 것임

4) 중앙정부 국책사업 참여 및 공동 파트너십 구축

- 경기도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의 대북국책사업에 경기도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중앙정부와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밀착형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예산의 이양을 추진함

5) 남북교류를 경기북부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

- 경기도는 남북교류의 확대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통해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함

첨부자료:

남북정상회담 분야별 추진상황

▷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

-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(장관급) 제1차 회의 개최: 2007년 12월 28-29일
 -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 연계함
 - 2008년 상반기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 2차 회의 및 「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」 「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」 「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」 「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」 개최 예정
-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: 2007년 12월 25-28일(부산)
 - 안변과 남포지역 조선협력사업과 해주직항로 통과 문제 협의
 - 조선협력단지 측량 및 지질조사 실시: 2008년 1/4분기
 -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: 2008년 3월 중 예정
- 평화수역/공동어로수역 문제: 2007년 12월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공동어로구역 운영 및 수산분야 협력 문제 협의 (2008년 상반기 공동어로사업 착수)
- 한강하구골재채취: 빠른 시일 내 실무접촉 및 공동조사 (2008년 사업 착수)

▷ 경제협력

-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: 2007년 12월 4-6일 (서울) 개최
-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: 2008년 2월 12-13일 (개성)
 - 개성-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현지조사결과 보고서 채택
 - 개성-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실무접촉: 2007년 11월 28-29일 (개성)
 - 개성-신의주 철도 개보수 실무접촉: 2007년 11월 20-21일 (개성)
-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: 2008년 1월 30일 (개성)
 - 개성-신의주 철도 개보수 및 베이징올림픽 응원단 경의선 이용 위한 철길 보수 협의 진행
- 문산-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: 2007년 12월 6일
 - 남북철도실무접촉: 2007년 11월 20-21일(개성)
 -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: 12월 1일(개성)
 - 화물열차 1일 1회 왕복 운행
 - 문산-봉동 철도 운송: 2007년 12월 11일 개시 (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, 화물 작업장 건설, 신호/통신/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 공사 조속 추진)
- 조선협력단지 건설
 - 안변, 남포 지역 2차 현지조사: 2007년 12월
 -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: 2007년 12월 28일 (부산)

- 안변 선반블록공장: 2008년 상반기 착수
- 남포 영남배수리공장: 가까운 시일내 추진
- 개성공단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: 2007년 12월 20-21일(개성)
 - 전차출입체계 운영: 2008년 상반기 예정
 -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·운영에 관한 합의서: 2007년 12월 21일
 - 1단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(1만 5천여명) 숙소 건설: 2008년 상반기
 - 2단계 사업
 - 측량 및 지질조사: 2007년 12월
 - 2단계 사업 착공: 2008년
 - 동·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·통신·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: 2007년 12월 13일
 - 07시 - 22시 상시적으로 통행 보장하며, 쌍방 공휴일의 통행은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함
 - 2008년부터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통신 허용
 - 쌍방은 선별검사 방식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, 세관검사장을 신설·확대키로 함

▷ 자원개발, 농업, 보건의료 등

- 지하자원 개발 분야
 - 단천지구광산
 - 제3차 현지조사: 2007년 12월
 - 사업계획 확정: 2008년

-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: 2007년 12월 15일(개성)
 - 우량 종자생산, 가공시설,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: 2008년 3월중 전문가 기술협의

- 남북보건의료·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: 2007년 12월 20-21일(개성)
 - 2008년에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시범 실시(2008년 1월 중 실태조사 예정)
 - 약솜공장 건립 착수 및 전염병 통제 및 실태조사자료 교환: 2008년 상반기
 -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사업 실무 협의: 2008년 2월중
 - 평양지역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: 2008년 3/4분기 예정
 - 환경보호센터와 한반도 생물지 사업 실무협의 및 2008년 3월중 산림 녹화협력사업과 산림병충해 구제 실시: 2008년 4월 중

▷ 사회문화분야

-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(장관급)
 - 역사유적과 사료 발굴 및 보존,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,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, 공동문화행사, 과학기술인력양성,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, 기상정보 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,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 등

- 금강산, 백두산, 개성 관광
 -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: 2008년 2월 5일 (개성)

- 서울-백두산 직항로 실무접촉: 2007년 12월 (개성)
-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:
2008년 2월 4일 (개성)
 - 응원단 규모 남북 각 150명, 경의선 열차 이용은 협의
-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: 2007년 12월 17-18일 (개성)

▷ 인도주의 분야

- 금강산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식: 2007년 12월 7일
-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: 2008년 2월 5일
 - 상봉 대상자들 중 각각 30가족씩, 판문점을 통해 영상편지 교환
-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: 2007년 11월 28-30일 (금강산)
-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: 2007년 11월 5일 (개성)
- 남북농업협력 자재·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: 2007년 12월 18일
 - 남북농업협력(양돈)사업은 남측의 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」와 북측의 「농업성 축산관리국」이 협의하며, 필요한 자재·장비는 남측이 차관 방식으로 제공

▷ 기타

- 남북총리회담: 6개월에 1회 개최 (2차회담: 2008년 상반기 평양)